

“중! 필리리 쿵! 중! 짜짜 짜...” 7살짜리 꼬마 지휘자 김희영군의 지휘에 맞춰 어린이 악단이 앙증맞은 연주를 하는 동안 광명시 청룡사(주지 법운) 법당에 가득찬 가족법회(회장 김영희)회원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환하게 그려지고 있다.

2월 25일, 5회째 열린 청룡사 ‘녹야인의 밤’은 특별히 가족법회 전회원이 참여하는 가족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얼마 보살들로 구성된 청룡사 불비

원들은 최근 더욱 알차고 활발한 가족법회 운영을 위해 우리 말로 된(가족법회집)을 제작해 법회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날 녹야인의 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꾸민 연극 ‘각설이와 누렁이’ 김수옥(광명상고)학생의 10명의 학생이 직접 각색, 연출, 분장을 도맡아서 만든 이 연극은 인연의 소중함과 불교의 윤회 사상을 코믹하고도 정감나게

◇ 항상 여법하게 치러지는 청룡사 가족법회는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웃음꽃을 피운다.



**청룡사 가족법회 ‘녹야인의 밤’ 현장**

니 무용단이 선비춤을 선보이고, 초등부 학생들의 탈춤 시연도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거사님들은 비디오편영에 진념하기도.

**노래·춤·연극 어우러진 온가족 찬불잔치**

보여주었다. 가족법회 최은순보살은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었다”며 연신 즐거워했고, 가족법회 총무인

**어린이·보살·거사 함께 꾸미는 무대 광명시장 화재에 성금모아 전달**

김진각거사도 “우리 가족법회 회원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은 줄 몰랐다”며 가족법회의 회원

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이날 ‘녹야인의 밤’은 노래하

이은자 기자



◇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가두포교를 풀기보다는 원력을 세운 중도반 회원들은 전국 어느대학 불교학생회보다 신행활동이 왕성하다.

**동아리 계명대 중도반**

**‘치우침 없는 자기수양’ 25년**

석가사서 매주법회...가두 포교로 일체감 형성

‘중도사람’이란 대구 계명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들은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70년 4월 26일, 치우침없는 자기수양을 위해 중도(中道)반을 만들었다.

기독교재단의 대학에서 불교 동아리를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압박과 ‘찬밥신세’를 슬하게 감내하는 인고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교내에 연등을 달거나 포스터를 붙일때는 언제나 등뒤에 와서 꽃히는 따가운 눈

총을 의식해야만 했다. 동아리신청을 한후 10년이 지나야 정식등록이 가능했다. 한 회원이 사법하고 본관에 농성했다는 창립신화도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런 연유로 해서 중도반은 재야적(?) 성격이 짙고 문제의식이 강하다. 교정의 잔디밭에서 수시로 열리는 막걸리법회에는 순수불교와 민중불교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강경노선이 우위를 점할때도 있지만 중도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법회가 신입회원에게는 세속적

축제 한마당이 된다. 매주 석가사(주지 경암)에서 법회를 갖는 중도반의 주요행사로는 꽃보시, 전통차 시음회, 사상강연회, 찬불가공연 등을 들 수 있다.

현 중도반회장 정성근군(법학2년)은 “올해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가두포교에 나서겠다”며 “전법활동을 통해서 회원간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시켜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

**우익적 X세대 스타**

**청주 관음사 박상열군**

법회가 시작되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웅전을 말끔히 청소하며 법회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 주위의 눈길을 끈다. 매주 이렇게 정성스레 법회를 준비하는 박상열군(청주중 3년)의 모습에서 ‘부처님 사랑’ 정신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청주시 관음사 법회에서 으뜸 스타로 떠오르는 박상열군(청주중 3년). 다소 남자

**대웅전 청소 솔선 누구에게나 다정**

로선 예쁘장한 얼굴에 작은 체구이지만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법회에 나오는 선후배 법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상열군은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한 얼굴에 친숙함부터 느낀다. 이처럼 박군은 후배들에게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하러서인지 그의 곁에는 항상 후배들이 떠나지 않는다. 특히 박군은 이미 선배

들로부터 관음사 차세대 회장(?)으로 내정해 놓을 정도. “일주일에 한번 사찰을 한번이라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지 않으면 왠지 주위가 어수선하고 공부도 잘 되지 않습니다”라며 “새학기에는 많은 후배들로 법당이 가득 찼으면 한다”고 말하며 후배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만화 법구경**

**\* 더러움의 장 \***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이항원

**불은 가르, 법향 가르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장을 둘러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 하던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문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급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찾아오시려면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737-0695, 팩스: 737-0696